

대전100624b마태복음산상설교b

2010-12-02 11:50:01 녹취 : 송재원

마태복음 5장 해봅시다. 5장 38~39절.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에 산상설교에 있어서 항상 구분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와 너희. 재미있는 것은 너희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산상설교를 이해한 사람만 너희가 되지 그냥 산상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 너희가 되죠. 너희들은 말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너희들은 전부다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만이 너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국은 주님께서 너희라고 기준을 제시하지 안 했으면 몰라도 너희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은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희에 해당되고 싶어도, 가만히 들어오면 저희에 해당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뺨 왼뺨 할 때는 먼저, 참 산상설교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희와 너희의 구분은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정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너희와 저희가 없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너희와 저희는 물에 물 탄듯 섞여 있죠. 예수님이 등장해서 산상설교 때려 버리니까 너희 따로 있고 저희 따로 있죠.

따로 있다는 말은 너희에 해당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너희라는 기준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라는 기준도 있겠죠. 이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할 때,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죠. 그러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보고 지키라는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은 누구 품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있다가 앞으로 이 기준대로 앞으로 예수님이 산다는 뜻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을 제시한 예수님이 이 기준 따라 살아가면서 드러날 때 너희와 저희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되어 있죠. 사랑을 누가 먼저부터 했어요? 예수님부터 먼저 사

랑하죠. 예수님부터 먼저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그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갚았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오히려 대적하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 해당되는 기준이니까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놓라 이것 누구보고 한 이야기 입니까? 예수님 본인 보고 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현재 시점에, 산상설교 시점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을 해나가시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생길 때 누구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산상 설교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쪽 모아놓고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게 천국가는 기준이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줘도 너희는 아니고 전부 다 저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밖에 없는, 거기에 기차 관통하듯이, 철로 깔아놓고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가지고 관통합니다.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예수님 기차를 타고 저희에서 너희로 올 수 있는 사람은 기차를 몰고 가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희에 있다가 내려 오겠죠.

나는 옛날에는 저희였는데 예수님공로로 저희에서 너희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십자가 맞은 편 산에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산상설교 하시고 내리막길 내려가서 다시 오르막길 올라가서 하겠죠. 십자가하고 맞은 편에 뭐가 보입니까? 산상설교 보이죠. 산상설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다 이룬다 하죠. 그러면 십자가 앞 맞은 편에 산상설교 보인다는 말은 이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율법이 되죠.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율법 있다. 갈라디아서 주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로 정리했어요? 복음과 십자가로 정리했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롤러코스트로 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 오기 전에 뭐부터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부터 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틀어 막고 저 주아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이야기 합니까 십자가 복음 이야기 하죠.

로마서 5장 초반에 보면 아담이 죄의 왕노릇한 뒤에 두번째 아담, 한분이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한분 예수님이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의가 왕노릇한다 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인간으로 봐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를 내가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받은 계시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받은 모든 계시는요. 내가 전한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또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기차를 타고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관통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그 구조가 뭘니까?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어디 모임에서 15년전인가 했더니만 몇 명의 목사들이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느냐면 이 산상설교나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이제 다시 도로 산상설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지켰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다시 도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이야기할 때 율법을 누구보고 이야기 합니까? 너희, 저희란 인간보고 이야기 하잖아요. 율법은 결국은 대상이 인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함께죠.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말도 했고, 대신이라는 말도 했어요. 이것은 8월달에 할건데 속죄라는 말을 해요. 미리 할까요?

미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뉘그러는 말에 보면 무른다는 말을 사람들이 몰라요. 물려준다는 말인지 손해봐서 물어준다는 말인지 그것이 아니고 기업을 무른다. 어떤 상속된 유산을 무른다는 뜻은 자기 땅인데 빚을 너무 많이 내어서 남한테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저 땅 내 땅인데 누가 내 대신 돈 줘서 저 땅을 도로 내 땅으로 돌려주는 어떤 일가 친척이 없을까? 그게 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날려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가 대신 와서, 나는 무능력자이니까. 나는 못하니까 내 대신 값을 치루어서 네 것으로 도로 돌려줄 수 있는 착하고 어질고 위대하신 그런 일가친척 없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엘이라고 합니다. 대속자. 그게 속죄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은혜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고아와 과부라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빚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은 것은 담보가 땅 밖에 없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것도 팔아 먹었는데 그것을 어떤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고맙게도 이 대신 치루어 줘서 하나님의 은혜속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한 조치를 가지고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부모를 죽여 버렸어요. 너무 어려서 복수가 안 됩니다. 삼촌가운데 힘이 센사람이 있어서 살인자를 죽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주는 것 이것도 고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리자, 보복자.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사람. 또 이것이 속죄니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는 사람도 되고, 우리의 역울함을 복수하는 사람도 되고. 복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역울한 일, 향료를 올리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복수하죠.

성경에 이스라엘 구약이 왜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구약은 우리 신약에 있는 복음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이라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그냥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라는 신약의 완성된 내막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버리면 안 돼요. 구약을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율법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다 지켜야 돼" 라는 의미인지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십자가 하고 율법하고 딱 마주 세우면, 함께 죽지 않고 예수님 혼자 잘나서 혼자 돌아가시면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아, 저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했구나! 자, 우리 차례다. 나는 예

수님 사랑을 알았으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함께 품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통대구 알아요. 지명 말고 생선에 알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좋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고. 배를 자르면 징그러울 정도로 들어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배갈라 보면 피 한방울마다 한명씩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다면 율법을 대할 때 이 십자가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 혼자 갑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갑니까? 예수님이 함께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될려면 정죄가 있어야 하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죄와 용서를 합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남녀간의 사랑은 욕정이라고 하죠. 땡긴다. 뭐 안고 싶다. 도파민이 나오면 세로토닌이 나오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진짜 정죄해요. 두번째 용서하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께서도 사하여 주시고 되어 있죠.

항상 사랑은 정죄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 기능은 누가 해요? 율법이 해야 돼요. 율법은 산상설교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명령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 하지마라가 다 해당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먹는 것 입는 것 족한줄로 알라. 마지막 때에 부모를 배역하고 ...쭉 나오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와 정죄 기능을 해요.

두번째 정죄 기능만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용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사랑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어느 것이 더 셉니까? 정죄보다 용서가 더 우세한 겁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바깥에 튀어 나오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많이 정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나 이것 지켰다 저것 지켰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상당히 사람들이 예민해 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용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안 봐요. 내 피는 얼마나 아까운데 주님께서 귀한 피를 나뉘에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흘렸구나! 그것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방금 강의한 내용 중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없죠.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하고 인간은 직접 연관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인간이 돈 내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짓는다고 돈 내라고 지가 세우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이 못세웁니다. 제가 참다 참다 큰 소리 냅니다. 제가 많이 참았어요. 교회는 인간이 못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이유가 뭐냐하면 사도행전 1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돈으로 달러로 황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 세우는데 그 피는 누구 피다? 예수님 피지 우리 피가 아니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회를 못세웁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가 돈 내도 십일조 내도 못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못세우면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생겼어요. 주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돈으로 십일조로 전도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냥 만들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모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귀해서. 그걸 안 보면 한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피 외면하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아서 속죄. 고엘, 누가 내 대신 값을 치루지 않으면 한평생 모든 죄는 해결할 길이 없는 줄 알아서 오직 죄인의 옆드러진 모습으로 문을 여는 다가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불현듯이 생각나서 이야기 했잖아요. 큰 교회 출입구가 향문 같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서 똥이 막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설사까지 나와요. 그 사람이 전부 욕심이 나오는 것이 그렇다. 진짜 교회는 뭐가 나와야 해요? 피가 나와야죠.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욕심이 차서 "아, 하면 되겠다." "아, 기도하면 복 받겠다." 더러워요. 교회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도 다 더럽게 만들고.

다시 해봅시다. 출발이 예수님 십자가 졌다. 십자가 졌을 때 혼자만 진 것이 아니고 함께 졌다. 따라서 율법에 볼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용서하는 것 현장에서 정죄하고 현장에서 용서하고. 이 문제 풀어봐.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내놔 봤나? 아니요. 원수를 사랑해 봤나? 미쳤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봐라 문제 내주고 용서하고. 너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너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동행을 중요시 합니다. 동행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최성수.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여성들이 결혼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데 같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동행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동행이 아니라 편리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여성은 결혼하면 자아를 바꾸니 안에 참외를 담으면, 여자들은 결혼할 때 자기 하는 일이 참외라면 참외를 바꾸니에 담아요. 여자의 의미가 뭐냐? 바꾸니 전체가 큰 바꾸니에 담기는 것.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큰 바꾸니. 나를 포함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큰 바꾸니.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참외나 바꾸니가 안 보이고 그것 버리고 그냥 내 바꾸니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태생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알랭바디우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둘로 그냥 가는 것이다. 자꾸 사랑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나 아닌데 자꾸 하나가 될려고 하니까 역지가 되니까 자기가 힘들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둘됨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툼자체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 남같으면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하면 하나 되는 것이 부부가 아니고 하나 될려고 애쓰는 것이 부부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될려고 애쓰면 둘이라는 구조를 버리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둘이 가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사랑이, 그 사람의 윤리라는 책에서 나와요.

지금까지 모든 사랑의 개념을 뒤엎는 것입니다. 돌임을 확인하는 것, 너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받아 들일 때, 산다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힘들고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만 주어지게 되면 마음에 상처만 될 뿐이라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둘인데 서로 관계나 한번 좁혀볼까? 이런 식으로 사는게 차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요.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런데 알랭바디우라는 사람이 뭘 모르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이미 누구와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 있든 없든 이 하나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하든 안 하든 예수님과 하나됨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알랭바디우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고 그저 행복, 결혼하는데 행복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이고 그냥 행복이 우선이고 사도 바울은 이미 현실, 창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예수님 사랑하듯이 하라. 용서가 나와요. 사랑이란 정죄와 용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가짜 사랑은 뭐가 빠졌습니까? 용서와 정죄가 빠져 버리고 자기 잘남, 자기 의로움만 있어버리면 남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저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되고 저 사람은 나의 동지가 되겠요. 원수가 된다는 말은 이미 사랑하고는 물건너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한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때려 죽어도 못지킵니다. 예수 십자가 알고 난 뒤에,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산상설교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을 때는 먼저 주님께서서 우리 입을 막아 버립니다. 왜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만 지키게 했다? 예수님만 지키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열령 내가 지킨다고 나서니까 열령 입을 막아 버려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원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방금 한 이 문장이 모든 성경의 윤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이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아이구 내가 못한것을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불신자가 "니 지금 뭐하노? 니 지금 원수를 사랑해?" "미쳤나?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 죽일려고 하는데" "그런데 방금 그 원수를 보고 감격 했잖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거야. 성령께서 하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같은 사람들이 발생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을 안 막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별짓을 다해요. 그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미 원수가 사라져 버려요. 사라진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한 것이 돼요. 그러면 원수 사랑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끝까지 원수가 되어야지. 복한을 사랑한 것은 원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한3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단을 만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사랑하는 이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굉장히 신학자들이 난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으면 원수를 사랑했으면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안 나와야지. 저주란 말을 다 해놓고 원수사랑한다고 하면 앞뒤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장하기를.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은 아예 뭐가 없다?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들어 놔버리면 원수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 없어야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 보면 평소에 더위도 넥타이 매고 점잖고 말하는 것도 온유하게 말하고 그저 지방교회하고 붙여 놓으면 누가 온유한지 상상해봐요. 여호와 증인하고 지방교회하고 누가 더 점잖은지. 둘이 한번 맞짖 떠봤으면 좋겠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가 더 점잖은지.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강의한 것을 해보겠어요. 프랑스 빵을 뭐라고 하죠? 바게트라고 하죠. 빵이 길죠. 여기에 약간 흠집을 내어서 여기는 고기 다진것을 넣고 여기는 야채나 잼이나 크림을 넣는다고 합시다. 이 위에 예수님께서 누워있다고 합시다.

여기 창세전부터 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간다고 할 때 이 바게트에 예수님께서 누워 있으면 두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공의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바로 용서죠. 다른 말로 하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렇다면 여기 인류라고 해도 되고 하나의 개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주님이 공의와 사랑을 쑥쑥 집어 넣는다고요. 바게트에 예수님의 용서가, 피가 묻혀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의, 공의가 뭐냐하면 엄중하심. 무서움이 오게 되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두 종류의 바게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위에 같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평소에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듬뿍 잼 발린 바게트가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 증인이고. 이것은 긍휼의 그릇이고. 또 한사람은 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예수님의 말만 나와도 십자가 나오기만 하면 반발해요.자꾸 반발하니까 주님의 공의는 저주를 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하나의 빵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산상설교가 다 해결되었죠? 산상설교를 두 자로 줄이면 율법이었다. 율법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이야기 하지만 나중에 십자가를 거치고 오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산상설교를 봐가지고, 어째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십자가로 구원되었는가를 보면 볼수록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용해서 이 산상설교를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 봅시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어디 다이어트 할 일 있습니까? 평소에 조깅못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억지인데.

그리고 40절에 보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요새말로 하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가 tv가 가져가면 김치냉장고까지 주라는 말입니다. 미쳤죠? 왜 줘야 하는데요?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어라. 그런 사채놀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자도 안 받고. 교회가 산상설교 지키면, 그런 산상설교 지키는 교회 가면 좋습니다.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본인이 산상설교 지킨다면. 교회 오야붕이니까." "언제든지 갚으세요." "갚기는 왜 갚아? 당신이 오늘 아침에 설교 했잖아? 산상설교처럼 살으라고. 돈 한 삼천만 땡겨주세요." 하면 "이게 미쳤나?"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바로 당신이 미친 겁니다. 자기도 천국 못가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막아 버리고. 삼천만원은 너무 심했습니까? 어떤 거지가 와서 이천원 빌려 달라고 하면 좋다고 빌려줘요. 왜? 그것을 빌려줄 때 자기는 마치 갚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는 것을 훈장처럼 달 절호의 찬스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천원. 참, 제가 교회할 때 거지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사찰한테 십만원 줘서 오는 사람들 한 만원씩 주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진짜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항상 초인종 누르고. 그냥 들어와요. 거지들의 구역이 있어요. 이쪽은 내 구역 저쪽은 내 구역 하면서 한바퀴 돌고 걸힌 돈으로 술만 퍼마시고. 교회 참석하는데 얼마 줄거냐? 아마 만원 주면 교회 참석 할 겁니다.

43절 봅시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들이 고민이 되어서 물었어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죠. 정답은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없어요. 왜 없냐면 인간은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은 없어요. 그러면 이웃이 언제 생기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어야 이웃이 생겨요. 어떤 제사장. 어떤 레위인이 이웃이 없는데, 지금 바쁘게 성전에 제사드리려 가야 하는데 주님이 이웃을 만들었죠. 가는 길에 누가 피흘리고 있더라 말이죠.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겠죠. 강도만난 사람이 피흘리고 있을 때, "아이구 미안합니다." 하면서 갓 짚아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고. 참, 이런것이 어려워져 말하기가 힘든데요. 이웃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웃은 없는데 뭐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창세전부터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게트 아닙니까? 바게트. 바게트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할 역할' 우리 앞에 등장하고 '이웃을 사랑해야할 우리 역할' 등장해서 빠방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웃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우리를 만나게 해서 그 사이에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느끼니까? 아, 주께서 피흘릴 수 밖에 없는 정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이 없다가 생겨나야 하나면 만약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아의 확장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 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이웃사랑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웃값을 할 때 이웃이라고 여기잖아요. 이웃값을 할 때.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어떤 집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까?" 하고 다가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 사람이 이웃될 가망성 때문에 내가 찾아 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기하고 10년 전에 원수였었다. 차마 말을 못하죠. 사람들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누가 선택합니까? 자기가 선택하죠. 그것을 주님께서서는 전면금지 시키는 겁니다.

금지시키고 주님께서 만든 이웃을 제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최고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너가 말씀대로 사느냐 보자 이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자기가 이웃 역할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웃은 커녕 원수로 취급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항상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집어 넣어서 해석해야지. 성경말씀하고 나만 달랑 남아 있으면 이것은 바리새인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사회적 해석. 나올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전부다 지중심의 해석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핍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들으면 할 것 같지요? 그래, 북한에 있는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내 몸을 미워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입니다. 그냥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뭐예요?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핍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핍박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매일같이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구원한 거예요.

왜?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율법 완성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놓친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십자가 산 있잖아요. 그 맞은편 산에 산상설교 있죠. 이 사이에 케이블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누가 이룬다? 주님께서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왜 예수님만 할 수 있는가? 그 현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고고학자들 처럼. 현장을 보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핍박을 하는 자들이 들통나죠.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순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아는 순간, 사랑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핍박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

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는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을 느낍니다. 남들같으면 내가 이룬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이용해서 주님이 일했다는 식으로 진행되더라 이 말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앓은뱅이르 낮게 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낮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용해서 주님이 직접 낮게 한 것처럼. 모든 매사가 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밀림." 우리가 현지 알든 모르든 아마존의 밀림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적용해보면 말씀속에 다 들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들어 있어요. "숙제 안 하나?" 고함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에 다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5절에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행함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너희 아버지죠. 그러면 누구는 빠지죠? 저희는 빠지죠. 아까 너희와 저희가 계속 구분된다고 했죠? 여기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창세전에 해당되는 사람만 너희에 해당되고, 저희는 아예 예정 안 된 사람이 해당되죠. 처음부터 사람을 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지옥갈 사람과 천국갈 사람이 이미 갈라져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으로 산상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와서 재확인 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받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용서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용서만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 받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핍박을 한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용서값을 해요. 만약에 죄도 없는데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할려는 사람이 뺄뚱하죠. "아, 너는 용서할 것도 없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돼요. 뭐가 용서가 될려면 죄가 계속 발생되줘야 용서하는 사람의 보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기분이 있을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계속 나와줘야 용서하는 분이 신바람이 나요. "아직도 나를 믿는구만. 아직도 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말이지" 신바람이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용서해 달라는 말이 제대로 나와요. 이해 못하면 "주여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고. 제대로 이해하면 "주여 두 세가지는 하겠는데 다른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좀 어설피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 "아, 저 하나님 아들 못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말을 항상 뒤에 탁탁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를 잘 쳤다. 갑자기 이상하게 잘 쳤다. "아! 나같이 잘 치는 사람 나와 보라고 해" 우쭐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받으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앞으로는 겸손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니까? 이걸 우발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교만할 수 있는, 의당 생겨먹은 것이 그래요. 생겨먹은 것이 죄짓도록 생겨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순간 나오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그것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는 그것이 안 돼요. "주여 부흥케 달라는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요. 부흥해 달라는 말만 했지. 부흥시켜 달라는 것이 용서받을,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껏 챙기면 그만이니깐. 자기 과시만 하면 되니까. 교만해지면 그만큼 폼나니까. 설교 시간에 '하라' '하지마라'를 해야 됩니다. 마음껏 하시고 그 뒤에 용서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 피를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사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삽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삽니까? 만약에 사랑하기 때문에 살면 그 가정에는 용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하면서 뭘 끄집어 내느냐면 나는 왜 아내를 미워하느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미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보 하고 아내가 퇴원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 죄를 알수가 있었다? 없었다? 몰랐습니다.

혼자 살지 마시고 결혼하세요. 해야 내가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 빼놓고 남 다 미워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안 합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게 평소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나 인간은 거짓죄다고 짧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실감나고 체험되는 것은 파리바게트처럼 살아가면서 "주여, 저 세리고 창녀입니다." 이런 인간을 주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께서는 "아이구 탕자구나! 걱정하지마 내가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어. 소고기 잡아줄께. 좋은 옷 입혀 줄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난 맛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잘났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못난 인간이고 죄인중에 괴수입니다. 항상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